

양파

The
Onion

우리 모두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죠. 수십만, 수백만, 수십억만번도 더 들었던 말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들, 대학 학자들, 그리고 쉽 없이 예측과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던 데이터 분석가들까지, 모두 우리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로. 미래로. 더 이상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가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상황보다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종말. 전 세계가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과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늙어버린 사람들. 우리 모두는 이 해결 방법을 알 수 없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수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 줄어들었고 밀레니얼 세대가 “X도 신경 쓰지 않는다”를 실제로 실현하면서, 더 이상 아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아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고생을 계속할 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역사적으로, 한국 정부의 국가 정책은 지금까지 꽤 똑똑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꽤 정보에 밝았죠. 상당히 현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층의 관료주의와 무한히 복잡한 정치 속에서, 몇 가지 영리한, 어쩌면 기발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는 분명 높은 속도의 연결성, 줄기세포 연구, 도시 이동 시스템, 사회 복지와 같은 좋은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류라는 추상적인 개념—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현상, 혹은 2020년대 중반 한국성을 띠는 모든 것들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베이비’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인 지금, 우리에게서 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답변이 바닥난 것보다는, 사실 답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늙어버린 거죠. 늙은 나라. 그리고 누구도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2020년대의 정부 정책은 제한적이었고 2대다수의 경우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죠. 가족 지원 정책, 보육

인프라, 주택 지원 등이 당시 정부의 전형적인 추론,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는 슬프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그 지원 영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LTE 네트워크, 심지어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급진적인 개념을 개척해 온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책이 이것 뿐이었을까요? 별로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궁극적으로는 매우 무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여전히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해마다 계속 감소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정부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출산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방안이 있을까?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대책 위원회는 상상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상자 밖을 생각하는 것. 아마 안에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자 밖을 생각하는 것. 밖. 상자 밖.

—

2020년대였습니다. ADHD¹ 세대의 진정한 탄생이 일어난 시대. 그 이전의 좀비 대재앙처럼, 하루에 5~7시간 동안 몇 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구성된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마트폰 중독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중독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독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병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분명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병이었습니다.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저녁을 먹는 커플들. 휴대폰만 쳐다보고 대화는 전혀 하지 않는 커플들. 이들에게 대화보다는 휴대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훨씬 쉬웠죠.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세대는 무의식적으로³ 혹은 슬프게도 의식적으로, 몇 분마다 주머니에 손을 뻗어 빠르게 도파민이 폭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참을 수 없는 충동. 심지어 겨우 이메일 같은

1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지속적으로 주의력 부족과/또는 과잉 활동성-충동성의 패턴이 나타나 기능이나 발달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https://www.nimh.nih.gov/health/topics/attention-deficit-hyperactivity-disorder-adhd>

것을 위해서라도요. 작은 이메일 한 통. 이메일 한 통? 새 메일이 왔나요? 새 메시지가 왔나요? 슬펐어요. 아주 슬펐죠. 하지만 이게 삶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 세상에 대한 당신의 비전이 실재하게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

이 ADHD 세대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불가능했죠. 도파민 자극을 원하는 갈망 때문에 몇 페이지 이상 읽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으면 지루해집니다. 몇 장 넘기자마자 슬금슬금 손이 다시 휴대폰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ADHD 세대는 실제 사람을 만날 때에도 거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공개 행사에서도요. 실재하는, 물리적인 약속들. 아니면 심지어 데이트 중에도요. 이 세대는 당면한 실제 상황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과 마음에는 대신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 가려움증은 휴대폰으로만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 휴대폰과 경쟁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대화, 실제 상호 작용, 실제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아무리 흥미롭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더 이상 휴대폰과 같은 만큼의 흥미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슬프죠. 아주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평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대책 위원회는 이전과는 다른 이 새로운 평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이 ADHD 현상에 대해 수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책 위원회가 출산 세대를 자극할 수 있는 경제 대책들에 집중하는 동안, 이 특정한 대책 위원회는 점점 더 낙담하는 사회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집중력이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는 사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회. 정말 슬프게도,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는 사회.

—

많은 발전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데이트에 대한 매우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트 과정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200개 문항의 설문조사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팅 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⁴소개팅'과² 같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적인 데이트 개념에 의존하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2

소개팅은 일종의 주선된 데이트입니다. 과거의 소개팅은 부모님들이 잠재적인 결혼의 희망을 두고 그들의 아이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 데이트를 위해 친구들이 서로의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 구성된 이 대책 위원회는 이렇게 서서히 진화하는 데이트 과정과 ADHD가 어떻게 맞물려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ADHD 세대가 비현실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접하고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발 빠르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짜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지만, ‘실제와 비슷한’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하이퍼 리얼? 이 세대는 소셜 미디어에서 100장의 사진을 찍어 결국 100장 중 단 한 장의 사진만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를 끊임없이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장 중 단 한 장만 선택된 이 특별한 사진은 놀랍게도, 매우 기가 막힐 만큼,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완벽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실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며, 불완전한 수많은 순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은 디지털 편집을 통해 완벽보다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정말 대단히 완벽합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

A.I.에게³ 이미지 및 동영상 조작의 도움을 받아 실제 인물을 조합하기도 했습니다. 현실과 초현실, 비현실과 환상의 만남.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책 위원회는 이전 도파민 자극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환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양의 환상 없이 도파민이 예전처럼 솟구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고여야 했습니다. 몹시 과도하게요. 현실은 이제 2순위였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만큼 흥미롭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실제 사람들의 이미지는 도파민 작용과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기준점보다 한참 아래였죠. 스펙타클함, 과도한 아름다움의 판타지, 감각적인 센세이션. 이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평범이 되었습니다.

3

AI. 인공지능. 인간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언어를 해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생성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 인간 뇌의 일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기계 사용의 연구.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artificial-intelligence>

—

이 대책 위원회는 다른 가능한 모든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의력 결핍과 도파민 중독 환경이 아기를 낳지 않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트의 즐거움은 이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데이트에서조차도, 참가자들은 데이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만큼의 자극을 받지 못했습니다. 번거로웠습니다. 느리고, 너무 몰두해야 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스크롤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고, 이 비현실에서는 더 쉽게 실재와 동등하거나 더 많은, 그 이상의 만족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신사 숙녀 여러분, “유동진법”에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한국 정부의 특정 계획법안은 상징성이나

식별성을 위해 사람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은⁴ 2016년 암암리에 행해지는 부패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 법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3만원 이상의 식품,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식이었죠. ‘유동진법’은 이 대책 위원회에서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데이트 정책이었죠. 연애했을 때 최소 일곱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일종의 미친 법안이었습니다. 일곱 번의 데이트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며 어떻게 정부가 개인의 데이트나 연애에 관여할 수 있죠? 미친 짓입니다. 그냥 돌았어요. 맞아요. 정부가 시작한 법안이죠. 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해요.

—

유동진법은 시작부터 실패할 위기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리를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이 발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냥 미쳤다고 생각했죠. 정부가 지금 뭘 요구하는 거지? 황당해. 터무니없다.

도대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법이 그렇듯, 법은 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준법적이고 친절하며 순종적인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예의를 지켰고, 모든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⁶이 얼마나 미친 짓이든 간에, 제정된 이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이전의 다른 법들처럼, 유동진법에도 순응하고 적응하기

4

김영란법, 다른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발의한 청탁금지법.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를 억제하고, 일반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심한 뇌물과 특정한 선물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시작했습니다. 캐주얼 데이트, 즉 가벼운 만남이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변화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데이트라고 인식되는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섯 번의 연속적인 데이트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캐주얼한 데이트 만남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불안과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자연은 적응 합니다. 사람들도 적응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곱 번의 데이트는 사람들 사이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일곱 번의 데이트는 그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미친 법안은 어떻게든 정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평범함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법의 바탕이 되는 논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책 위원회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에 있어서는, 꽤 양립하기 쉽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인간 조합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계에서 그러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현재의 실질적인 형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이는, 기억할 수 있는 한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것이 매우 한국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지극히 한국적인 것이었죠. 한국은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한 차례 이미 엄청난 성형수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했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ADHD는 방정식의 일부였을 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외모 기준과 동시에 맞물려 ‘정상’ 또는 ‘정상 이하’의 사람들은 연애에 성공할 수 없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정상이란, 외모가 정상이란 뜻입니다.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은 다시 비현실적인 기대와 맞물려 결국 현실의 모든 것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책 위원회⁷는 궁극적으로 ‘소개팅’의 실패율이 천문학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 ‘소개팅’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었기에, 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아마 놀라우면서도 한술 더 떠서 조금은 한심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데이트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실패 원인은 앞서 언급한 미적 기준과, 짧아진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력적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비현실과 경쟁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슬프게도, 상응하는 참가자 양측 그 누구도 지금의 높은 기준치에 필적할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역사적으로 외모에 있어서 더 “관대”했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당당히 선언했던 여성들도, 글썄, 이 대책 위원회는 결국 이것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결정했습니다. 외모는 역시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외모는 중요 요소였죠. 키, 부족한 키, 피부색, 치아, 눈, 코, 비만, 탈모 또는 불필요한 모발 성장.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시각적 외모 평가 속도의 가속화, 즉 스와이프 제스처로 100만분의 1초도 걸리지 않아 데이트 거절을 완료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한층 더 외모를 중시하는 현실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망해버린 세대.

—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국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벌금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추상적이었습니다. 이 법의 힘은 아마도 루머와 소문에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누구는 벌금을 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벌금이 부과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엔 충분했습니다.

—

사회는 적응했습니다. 사회는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나중에 일종의 귀여운 비공식적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8 일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양파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련의 일곱 번의 데이트를 이어가는 커플들을

보며, 이 과정을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에 비유하기 시작한거죠. 껍질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더 복잡하고, 더 생동감 넘치고, 더 강렬하고, 때로는 더 많은 눈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양파’라는 용어는 이상하게도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귀엽다. 궁금하다. 살아있다. 강력하다. 사람들은 인간의 껍질을 벗기는 개념적 요소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았던 어떤 날것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허영심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강력하고 강력한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파 비유는 이상하게도 적절했습니다. 양파처럼 데이트 과정이나 인간관계가 반드시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호 작용은 아름다운, 특히나 ‘즉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데이트는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단 한 번의 데이트가 아니라 연속된 데이트였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 갈등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데이트가 될 무렵 명백히 탐탁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 혹은 과거 같았으면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떻게든 더 많은 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추가적인 다음 한 번의 데이트는 무언가를 이뤄냈습니다. 또 한 번의 만남. 이상하게도 한 번 더 데이트를 하게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갈등을 극복하게 해줬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트 프로세스에 딱 한 번의 데이트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한 번의 추가된 데이트를 통해 망가진 것을 고칠 수 있었으니까요.

—

이 일곱 번의 데이트는 보통 일정한 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데이트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끌림이 없었습니다. 이 법이 처음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7일이라는 책무 때문에 사람들이 데이트를 꺼렸기 때문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끌림이 없었다면, 시작될 만한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적응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화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일곱 번의 데이트 요건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요. 사회적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빅 데이터. 소문. 나중에 진실로 밝혀진 소문. 곧 양파에 대한 소문은, 소문들이 그렇듯이, 마구 퍼져나갔습니다. 이 양파. 너무 궁금한 양파. 이제 이것은 ‘떠오르는 이슈’였습니다. 양파.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요.

“양파를 시도해 보셔야 해요.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무슨 일을 겪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접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이렇게 공유된 소문은 허름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파처럼요. 소문에는 모든 걸모습엔 항상 날것의 진짜 모습, 매혹적이고 어쩌면 아름답게 신랄한 것이 숨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곧, 양파는 일종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양파를 시도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경험하는 동안에, 양파의 신비로운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 언뜻 보기엔, 또 첫 데이트에서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그 핵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데 근접하기 위해선 7일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엿보기 시작하는 데에는 7일이 걸렸습니다. 유머, 따뜻함 같은 추상적인 것들. 부드러움. 친절함. 일반적으로 첫 데이트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개념들. 이런 종류의 것들은 디지털 이미지에서 절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들은 작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양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보물들이 되었죠. 그리고 날씨가 거칠해질 때마다, 이 보물 중 일부는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게임의 레벨처럼.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떠오르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먼저 거쳐본 그들은 흔적들을 찾아보라 말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열심히 찾으면 그것들은 거기에 있다고요.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미묘한 것들. 무언가의 흔적이 그 밑에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거기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멈추지 마세요. 더 멀리 가보세요.

더 파헤쳐 보세요. 더 나아가세요. 거기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의미 있는 무언가가 그 밑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있습니다. 영혼? 어쩌면? 아마도?

음, 영혼까지는 아닐지도 모르죠. 어쩌면 한 인간일지도요. 존재하는 진짜 인간. 누군가. 저 안 어딘가에 앉아서, 이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기다립니다, 거기서.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록 1: 위장

사람들은 “양파의 법칙”에 불문율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의 에티켓이자 무언의 의식이 된 규칙은 이 강력한 양파의 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리라는 단순한 행위였습니다. 7일 동안 각 참가자는 서로를 위해 집에서 만든 음식을 한 가지씩 요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 과정의 일부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요리라는 단순한 봉사 행위가 그 자체로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도, 바질 페스토 펜네나 몬터레이 잭 치즈를 얹은 신라면 한 접시를 만들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눔의 마술이었습니다. 감각적 선물의 마법. 맛있는 식사는 가장 파괴적인 논쟁도 치유할 수 있고, 가장 냉담한 인간관계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법처럼요.

그리고 그것은 일곱 번의 데이트 과정의 비공식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구의 구원투수처럼, 일곱 번의 데이트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요리를 사용하기도 했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으로요. 어느 쪽이든 요리하는 손도 데이트 과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촉각, 미각, 후각. 요리와 감각의 선물, 이 둘은 양파 과정의 일부였죠. 사람들은 우리의 위장이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 불문율은 위장이 다른 위장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위는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믿을 수 없었지만 위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부록 2: 세계는 양파를 원한다

양파는 한류, 방탄소년단, 한국 영화처럼 곧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어쩐지 우연히, 놀랍게도 말이죠. 처음에 그토록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 법, 절대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여겨지던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임의의 법 하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 있었는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양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집중력을 가진 세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소셜 미디어는 이제 양파라고 불리는 이것의 독특함과 특이함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양파는 인류를 위한 반창고가 되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통을 치유했습니다. 시각적인 것에 집착하는 세상의 고통. 외모에 집착하는 역사의 고통. 그리고 이 이상한 법, 이 양파라는 이상한 것이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필리핀에서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양파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한국 정부의 또 다른 기이한 업적 혹은 승리가 되었습니다.

부록 3: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양파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과 이혼율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애 관계, 장기 커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갈등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더 많이 태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책 위원회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데이트 활동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의 많은 집단이 이제 데이트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되어본 적 없는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행복도가 상승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이 질문은 정부 대책 위원회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